제20호(2012.5.22)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

박 대 식　마 상 진

1. 조사 및 분석 개요 ····· 3
2.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 ····· 5
3. 농촌주민의 공생발전 인식과 개선 요구 ····· 15
4. 시사점과 과제 ·····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박대식** 연구위원 02-3299-4345 pds8382@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근년에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도시보다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사회의 양극화는 국민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됨. 따라서 농촌의 양극화 실태를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사회참여 등 삶의 질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국가통계자료의 재분석 및 농촌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분석 결과, 삶의 질 각 영역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은 도시주민들과 격차가 나타났으며, 농촌 내부에서도 양극화되어 있었음. 농촌주민의 절반 정도가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양극화 정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기존 사회조사에서도 농촌주민들은 자기가 속한 소속 계층의 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부문별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가 가장 심하였음. 예를 들어 농가소득의 1분위 계층 대비 5분위계층 소득은 2005년에 9.6배에서 2010년에는 12.1배로 확대되었으며, 농촌주민의 소득 만족도가 도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종합적으로 농촌사회의 양극화 정도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소득 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3%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고용 부문(55.1%), 교육 부문(41.4%), 건강 부문(36.5%), 사회참여 부문(46.9%) 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 대하여 농촌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낮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음. 농촌사회의 공생발전에 대한 현안으로 농촌주민들은 의료서비스, 기초소득보장,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었음. 그리고 농촌주민들은 농촌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소외계층으로 노인계층과 장애인, 영·유아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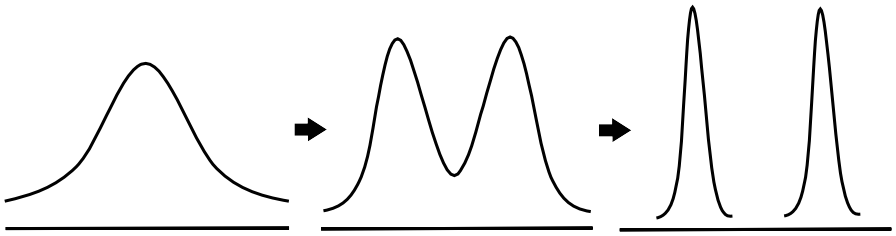
농촌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업·농촌 개발의 관점이 규모의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관련 정책으로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이 필요함. 나아가 농촌주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역량 강화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조사 및 분석 개요

○ 근년에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도시보다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삶의 질에 있어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문화가족과 조손가족 그리고 도시 은퇴자들의 귀농·귀촌 등이 증가하면서 농촌사회 내부의 동질성이 약화됨과 동시에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정부가 최근에 공생발전, 동반 성장, 공정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듯이, 이러한 정책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양극화(bi-polarization)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문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 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칭함
- 즉, 양극화는 분포가 중간층에서 양극단으로 흩어지면서 집단화되고 집단 간의 이질성 및 집단 내의 동질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그림 1. 분포의 양극화 과정



○ 양극화 과정에서 부문 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더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어려워지며, 내수가 침체되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됨
- 국민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통합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됨

○ 이 연구에서는 도·농 간의 차이를 넘어 농촌사회 내부의 소득·고용·교육·건강·사회참여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 국가통계자료를 재분석하고 농촌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통계 분석을 위해 이용한 자료는 「사회통계조사」,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2000~2011년) 등이며, 통계청에서 원자료를 입수하여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재분석하였음
- 구체적으로 분석한 항목으로는 소득 부문은 가구소득·소득만족도, 고용 부문은 근무만족도(근무환경·근무시간), 교육 부문은 교육수준·교육비부담 인식, 건강 부문은 건강평가·유병일수, 사회참여 부문은 사회단체 참여·자원봉사 참여 등이었음

○ 농촌주민대상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 농촌(읍·면)지역의 20세 이상 성인으로 전체 표본의 수는 1,000명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였음
- 표본 추출은 농촌지역을 읍·면, 권역, 연령 등의 모집단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할당추출하였음
- 조사방법은 표준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전화조사[1]로, 조사기간은 2012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였음

1)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리서치 앤 리서치(R&R)'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음.

2.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

2.1. 소득 부문

□ 1분위 계층 대비 5분위 계층의 소득은 농가가 도시가구보다 커서 2005년 9.6배에서 2010년에는 12.1배로 확대

○ 기존 국가통계자료의 재분석 결과, 소득 부문에서 농가를 중심으로 농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음

-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비농가의 경우 2003년 농촌가구의 1분위계층 소득 대비 5분위계층의 소득이 6.7배에서 2010년 5.5배로 소폭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도시가구의 1분위계층 소득 대비 5분위계층의 소득은 5.0배에서 5.8배로 소폭 증가하였음
- 농가의 경우 2003년에 1분위계층 대비 5분위계층 소득이 15.1배에서 2005년 9.6배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다시 12.1배로 확대되었음. 이는 도시가구 그리고 농촌의 비농가와 비교할 때, 농가의 소득계층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1. 가구소득(연간 소득) 변화 동향

단위: 천 원, %

구 분		연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B)	전체 평균	B/A
비농가	도시	2003	12,068	22,079	29,705	38,644	60,202	32,540	5.0
		2005	12,458	23,324	32,314	42,563	67,708	35,675	5.4
		2010	14,424	28,874	39,785	52,774	84,323	44,042	5.8
	농촌	2003	7,703	16,299	23,827	32,462	51,285	26,303	6.7
		2005	7,863	18,255	26,793	36,350	60,502	29,965	7.7
		2010	13,473	28,339	37,990	49,596	73,845	40,664	5.5
농가		2003	4,035	14,967	22,194	32,055	61,095	26,877	15.1
		2005	7,272	15,555	23,822	35,902	69,967	30,503	9.6
		2010	6,620	15,973	24,738	37,803	80,074	32,120	12.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2인 가구 이상)

□ 농촌주민의 소득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주관적인 소득만족도 변화 동향을 보면 농촌의 경우 불만족자 대비 만족자 비율이 2003년에는 25%로 매우 낮았는데, 2011년에는 21%로 더 낮아졌음

- 같은 기간 도시의 경우 불만족자 대비 만족자 비율이 2003년 24%에서 2011년 역시 24% 수준이었음

표 2. 소득만족도 변화 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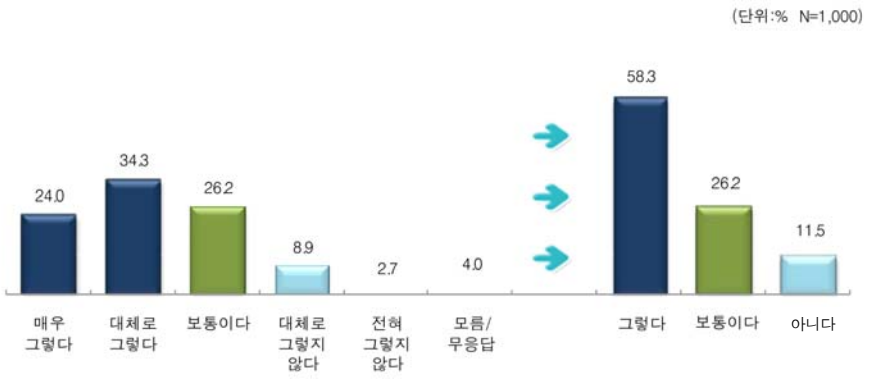
지역	연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A+B)/(C+D)
도시	2003	1.3	10.5	39.5	35.1	13.6	24.2
	2007	1.1	8.9	36.2	35.7	18.2	18.6
	2009	1.5	12.7	39.6	32.7	13.5	30.7
	2011	1.5	10.5	38.9	35.5	13.6	24.4
농촌	2003	1.4	11.2	36.6	37.0	13.8	24.8
	2007	1.3	8.9	37.8	35.9	16.1	19.6
	2009	1.6	11.9	38.3	34.9	13.3	28.0
	2011	1.2	9.3	40.5	36.3	12.6	21.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 농촌주민들은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

○ 소득 양극화에 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극화되어 있다('그렇다' + '정말 그렇다')는 응답이 58.3%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11.5%)의 5배가 넘었음

그림 2. 농촌주민의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인식



2.2. 고용 부문

□ 근무환경 및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근무환경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농촌주민의 경우 불만족자 대비 만족자 비율이 2002년 69.4%에서 2011년 96.6%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과 2009년에 100% 이상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에 다소 악화되었음

- 최근에 근무환경 만족도가 악화되는 경향은 도시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표 3. 근무만족도(근무환경) 변화 동향

단위: %

지역	연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A+B)/(C+D)
도시	2002	4.3	17.2	47.0	20.2	9.4	72.6
	2006	6.9	19.6	46.7	17.7	7.7	104.3
	2009	4.6	22.6	47.0	17.2	7.2	111.5
	2011	5.0	20.7	46.1	17.6	8.3	99.2
농촌	2002	4.3	17.0	45.8	21.6	9.1	69.4
	2006	7.1	20.4	47.2	16.5	7.2	116.0
	2009	5.3	22.3	47.3	17.0	6.1	119.5
	2011	5.2	17.8	51.2	17.7	6.1	96.6

* '모르겠다' 응답 제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 근로시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농촌주민의 경우에는 불만족자 대비 만족자 비율이 2002년 65.2%에서 2011년 93.8%로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6년(133.2%)에 비해 최근 들어 다소 낮아지고 있음

- 최근에 근로시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도시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음

표 4. 근무만족도(근로시간) 변화 동향

단위: %

지역	연도	매우 만족 (A)	약간 만족 (B)	보통	약간 불만족 (C)	매우 불만족 (D)	(A+B)/ (C+D)
도시	2002	5.2	15.4	44.6	23.3	10.8	60.4
	2006	7.9	18.9	43.7	19.8	9.3	92.1
	2009	5.2	18.0	47.3	20.5	8.4	80.3
	2011	5.6	17.7	45.4	20.2	9.6	78.2
농촌	2002	5.5	16.6	43.4	24.5	9.4	65.2
	2006	9.2	21.3	45.8	15.9	7.0	133.2
	2009	6.3	18.9	46.4	19.8	7.3	93.0
	2011	6.1	17.9	49.1	18.2	7.4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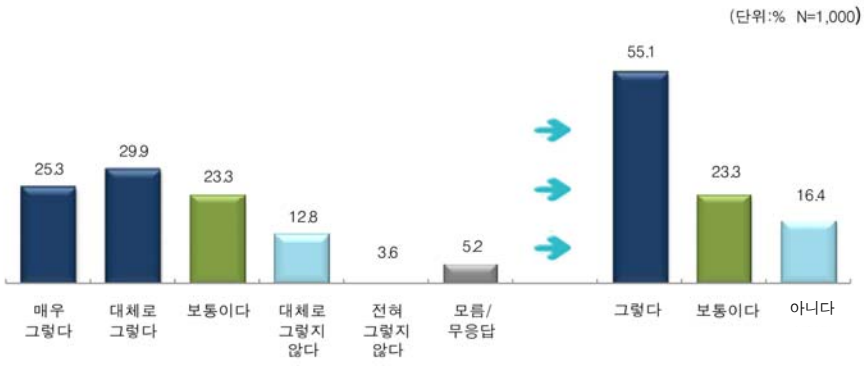
* '모르겠다' 응답 제외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 농촌주민들은 고용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

○ 농촌사회 고용의 양극화에 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극화되어 있다('그렇다' +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5.1%로 양극화되어있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16.4%)의 3배가 넘었음

그림 3. 농촌주민의 고용 양극화에 대한 인식



2.3. 교육 부문

□ 농촌주민 가운데 저학력자 비중이 약 50%에 달함

○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농촌주민의 교육 수준을 보면, 농촌주민 중에 중졸 이하 자 대비 초대졸 이상자 비율이 2004년에는 26.0%에서 2010년에는 40.1%로 상승하였음

- 도시의 학력 양극화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하였지만, 농촌주민 중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표 5. 교육수준 변화 동향

단위: %

지역	연도	초졸 이하 (A)	중졸 (B)	고졸	초대졸 (C)	대졸 이상 (D)	(C+D)/(A+B)
도시	2004	26.5	12.1	32.3	8.4	20.5	74.9
	2007	22.0	10.0	35.3	9.7	23.0	102.2
	2010	12.2	9.8	37.1	15.3	25.6	185.9
농촌	2004	44.0	13.6	27.4	6.0	9.0	26.0
	2007	42.2	12.5	28.8	6.3	10.1	30.0
	2010	36.9	13.0	30.1	9.7	10.3	40.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 농촌주민 중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증가 추세

○ 사회조사에 조사된 교육비 부담과 관련한 인식을 보면, 농촌주민 중 교육비 부담이 되지 않는 계층 대비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2000년에는 5.3배였는데 2010년에는 13.2배로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도시의 경우도 10배에서 16배로 증가하였지만, 농촌에 비해 증가폭이 적었음. 즉, 도시주민들에 비해 농촌주민들에게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있었음

표 6.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변화 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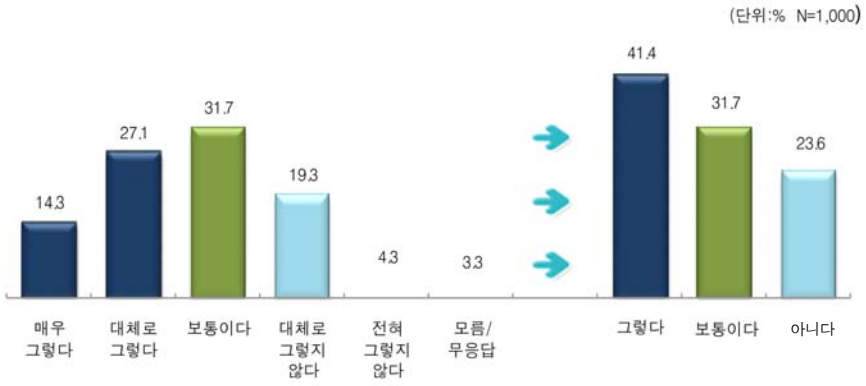
지역	연도	매우 부담 (A)	약간 부담 (B)	보통	별로 부담 안됨 (C)	전혀 부담 안됨 (D)	(A+B)/ (C+D)
도시	2000	15.1	23.9	10.2	2.9	1.0	1,000.0
	2004	37.8	40.2	16.3	4.4	1.3	1,368.4
	2008	40.1	40.4	15.0	3.9	0.5	1,829.5
	2010	37.9	40.8	16.4	4.2	0.7	1,606.1
농촌	2000	12.3	16.2	8.0	3.7	1.6	537.7
	2004	36.5	36.2	18.7	6.5	2.2	835.6
	2008	37.9	38.0	18.6	5.0	0.6	1,355.4
	2010	34.6	42.0	17.6	5.1	0.7	1,320.7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 농촌주민들은 농촌의 교육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

○ 농촌사회 교육 양극화에 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극화되어 있다(‘그렇다’ +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41.4%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23.6%)의 2배에 가깝게 나타났음

그림 4. 농촌주민의 교육 양극화에 대한 인식



2.4. 건강 부문

□ 농촌주민의 유병률이 도시보다 높은 경향

○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유병률 통계를 보면, 농촌주민의 경우 2003년 26.3%에서 2008년 21.8%로 양호해지다가, 2010년 25.3%로 다시 악화되고 있었으며, 평균 유병일수도 2003년 6.3일에서 2010년 8.1일로 늘어나고 있음

-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의 유병률과 유병일수 모두 높은 수준이었음

지역	연도	유병률 (%)	평균 유병일수(일)	평균 와병일수(일)
도시	2003	19.6	5.9	0.8
	2006	18.5	6.9	0.7
	2008	16.6	8.1	0.7
	2010	19.7	7.1	0.6
농촌	2003	26.3	6.3	1.0
	2006	24.6	7.9	0.8
	2008	21.8	9.0	0.7
	2010	25.3	8.1	0.6

2.5. 사회참여 부문

□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

○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농촌주민들의 사회단체 참여율 변화 동향을 보면, 2003년 45.5%에서 2006년, 2009년에 다소 줄어들다가 2010년 47.1%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불참자가 더 많았음

- 사회단체 참여유형별로 보면 친목사교 단체에 대한 참여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종교나 취미 레저, 기타(학술, 이익, 정치) 유형의 단체에 대한 참여는 다소 늘고 있었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경우 2003년 17.6%에서 2010년 19.4%로 역시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수준이었음
- 사회단체 참여, 자원봉사 참여의 변화 동향은 도시와 비슷하였음

표 9. 사회참여 변화 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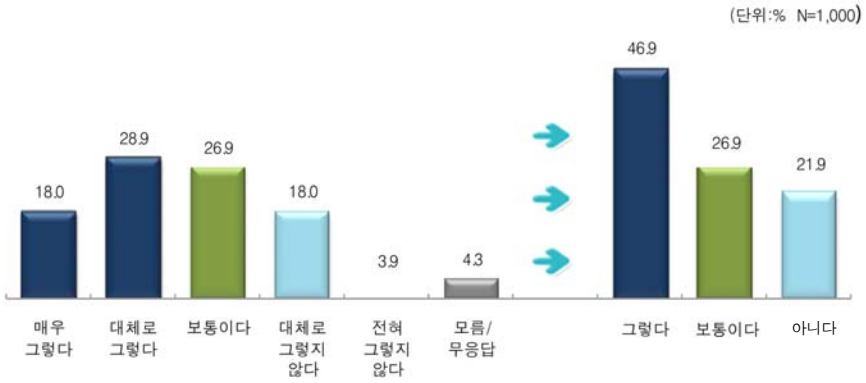
지역	연도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친목 사교	종교	취미 레저	시민 사회	기타	전체	
도시	2003	30.1	6.3	5.3	1.8	1.2	44.7	13.9
	2006	23.9	6.0	4.9	2.0	1.3	38.2	13.9
	2009	22.2	8.3	5.2	2.4	1.5	39.5	19.4
	2011	24.7	9.7	7.5	2.3	2.3	46.5	19.9
농촌	2003	33.6	4.9	3.8	2.2	1.1	45.5	17.6
	2006	29.1	5.0	3.7	2.5	1.0	41.4	16.1
	2009	27.9	5.6	3.7	3.0	0.9	41.0	18.7
	2011	28.4	7.0	5.0	2.6	4.0	47.1	19.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 농촌주민들은 사회참여도 양극화되어 있다고 인식

○ 농촌사회 사회참여의 양극화에 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극화되어 있다('그렇다' + '정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46.9%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21.9%)의 2배가 넘었음

그림 6. 농촌주민의 사회참여 양극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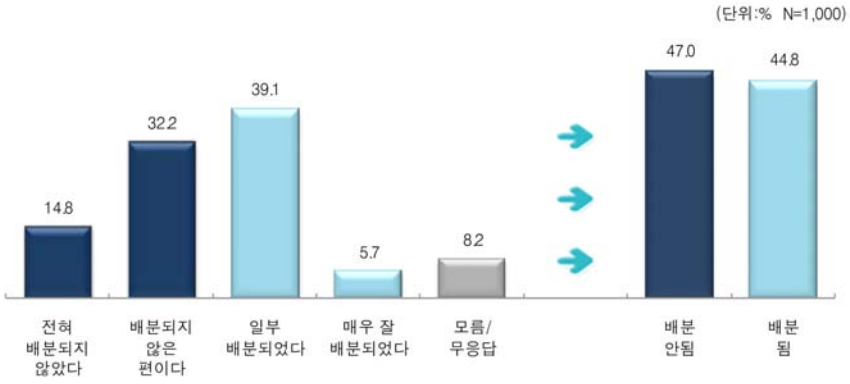
3. 농촌주민의 공생발전 인식과 개선 요구

3.1. 공생발전에 대한 인식

□ 농촌주민들은 경제발전 성과가 농촌에 배분되지 않았다고 인식

○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주민의 경제발전 성과 배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다('전혀 배분되지 않았다' + '배분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 비율(47.0%)이 제대로 배분되었다('일부 배분되었다' + '매우 잘 배분되었다')는 응답 비율(44.8%)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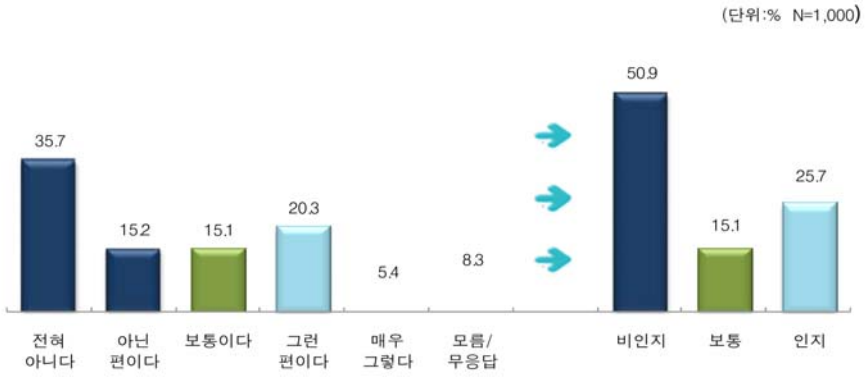
그림 7. 경제발전 성과 배분에 대한 인식



□ 농촌주민들은 공생발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 정책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한다는 인식

○ 공생발전 정책에 대한 농촌주민의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하지 못한다('전혀 아니다' + '아닌 편이다')는 응답 비율(50.9%)이 인지한다('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25.7%)보다 높게 나타났음

그림 8. 공생발전 추구 정책에 대한 인지도



○ 농촌주민들은 공생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생발전 정책에 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부분적으로 공감한다' +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 비율(52.7%)이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기 어렵다' +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40.0%)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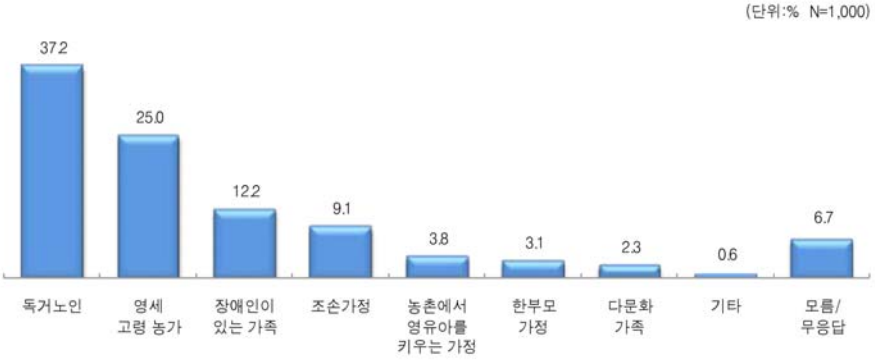
그림 9. 공생발전 추구 정책에 대한 인식

3.2. 농촌주민의 양극화 개선 요구

□ 농촌주민들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식

○ 농촌주민들은 농촌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을 독거노인(전체응답의 37.2%)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영세고령농가(25.0%), 장애인(12.2%), 조손가정(9.1%), 영유아가족(3.8%)순이었음

그림 10. 농촌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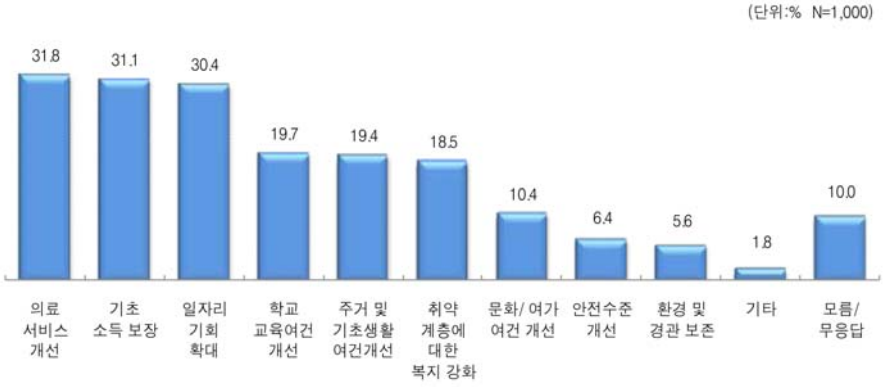


□ 농촌주민들은 농촌사회의 우선 해결 과제로 의료, 소득, 일자리, 교육 등의 문제를 제기

○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촌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현안은 의료서비스 개선(31.8%)이었음

- 그 다음으로는 기초소득보장(31.1%), 일자리 기회 확대(30.4%)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이밖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19.7%), 주거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19.4%),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18.5%) 등이 농촌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으로 지적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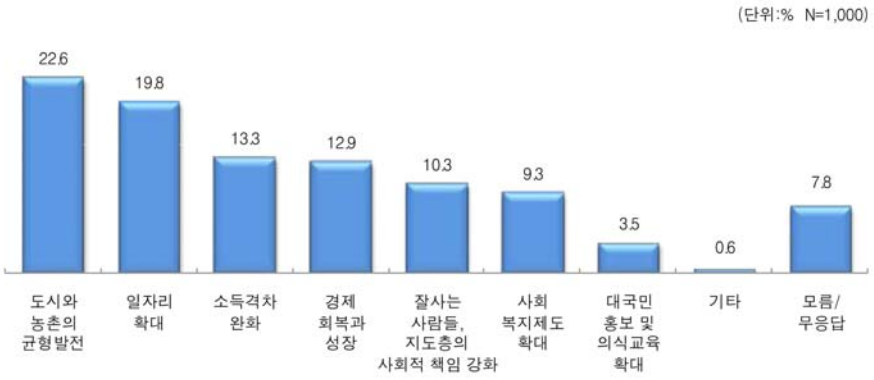
그림 11. 농촌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중복 응답

○ 우리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농촌주민들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22.6%)을 가장 많이 선정하였음
- 그 다음으로 일자리 확대(19.8%), 소득격차 완화(13.3%), 경제회복과 성장(12.9%), 잘 사는 사람들(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강화(10.3%), 사회복지제도 확대(9.3%) 등을 꼽음

그림 12. 우리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중복 응답

4. 시사점과 과제

□ 최근의 농촌사회 양극화는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의식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등의 삶의 질 각각의 영역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은 도시주민들과 격차를 나타냈으며, 이들 지표는 농촌 내부에서도 양극화되어 있음
- 농촌주민의 절반 정도가 현재 농촌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양극화 정도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사회조사에서도 소속계층의 이동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업·농촌 개발의 관점 전환이 필요

○ 그동안 농업·농촌 분야의 개발에 있어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둔 시장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음
- 이로 인한 성과도 있지만, 도시와의 격차 심화, 농촌 내부의 양극화 가속화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 현상들을 낳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 앞으로는 농업·농촌 개발에 있어 사회적 경제, 호혜의 경제에 근거한 정책들이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에 근거한 관련 정책들이 다양한 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농촌에 더욱 활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필요

○ 양극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을 포함한 영세고령농가,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이들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정책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인적·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농촌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마을의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농촌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5. 21
발 행 2012. 5. 22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김창길, 박시현, 박준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